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Edible Economics · Chapter 15 SPICES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Ha-Joon Chang, Edible Economics — 「Spices」 (원서 PDF 115~119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5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향신료가 낳은 유한 책임, 왜 이제 걸림돌인가."

이 장은 저자가 직접 만든 요리, 커리 조개 국물을 곁들인 아귀로 시작한다. 어떤 음식도 갈망하지 않는다는 저자가 유일하게 그리워하는 음식은 남아시아 음식인데, 정작 처음 먹었을 때는 싫어했다. 영국에 오기 전까지 향신료를 다섯 가지밖에 몰랐던 저자는 '향신료광'이 된 뒤 조상을 원망하다가, 향신료가 자라기에는 너무 추운 땅에 살았고 향신료 땅을 침략할 의지(또는 능력)도 없던 조상에게 불공평했다고 깨닫는다. 이야기는 유럽의 향신료 탐색으로 넘어가, 대양을 몇 개씩 건너는 위험한 무역에 돈을 모으려고 투자자의 책임을 투자한 몫까지로 묶은 유한 책임 회사가 자본주의 발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저자는 금융 규제 완화로 조급해진 주주들 때문에 이 제도가 이제 경제 진보의 걸림돌로 바뀌고 있다며, 장기 보유 보상 · 이해관계자의 발언권 · 금융 규제 강화로 유한 책임을 개혁하자고 제안한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14장(라임)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과 장 끝의 각주는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 · '○쪽 각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유한 책임을 개혁해 장기 보유를 보상하자(118쪽 ¶4~¶5) / 향신료가 없던 것은 조상의 탓이 아니었다(116쪽 ¶3~¶4) / 진보의 수단이 걸림돌로 – 같은 제도, 다른 맥락(119쪽 ¶3~¶4) / 향신료 탐색이 주식회사를 낳았다(116쪽 ¶6)
4~5	**밑줄 함축 의미**	lacked 'body' / as good as not having consumed them at all / a spice fiend / pared-down versions / I was being unfair / sending a Mars probe – and successfully getting it back / their liabilities were unlimited / 'other people's money' / the ulterior motive / this once-mighty vehicle / 'cash in' / the supposed 'owners' / a 'quick buck' / perk up one dish but ruin another
6	지칭 추론	it이 남아시아 음식과 타이 음식 사이를 오가는 115쪽 ¶2~¶3 / these(115쪽 ¶1 = 이탈리아 · 멕시코 · 일본 음식) / they · them(115쪽 ¶6 = 다섯 향신료) / they(116쪽 ¶3~¶4 = 저자의 조상) / it(116쪽 ¶6 = 향신료 탐색) / They(117쪽 ¶3 = 두 동인도 회사) / it(117쪽 ¶5 = limited liability) / them(118쪽 ¶3 = 주주) / ones(119쪽 ¶1 = shareholders)
7~8	내용 일치·불일치	119쪽 각주 i(10곳 중 8곳 이상 · 95% · Sylhet) · ii(저자의 육수) · iii(콜럼버스) / 6개월 · 2주 · 1980년대 후반(소호) · 1987(이탈리아) · 다섯 향신료(날것은 셋) · 처음 30년 · 1600 · 1602 · 19세기 후반 · 19세기 중반 · 5년 → 1년 미만 · 90~95% · 절반 미만 · 2년 · 20표
9~10	**어법**	go without + -ing · Nor + 도치 · must have p.p. · 분사구문 thinking back · 과거완료 had known · as good as + 동명사 · come to V · find + O + 형용사 · It is ~ for which · as long as · had we used(도치 가정법) · too ~ for … to V · Less well known is(보어 도치) · cost + IO + DO · enabling + O + to V · So began(도치) · Among them was(도치) · let + O + 원형 · get away with + -ing · so many ~ that · whose · thereby + -ing · one of the + 최상급 + ever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instant↔gradual · subconscious↔conscious · authentic↔fake · daunting↔encouraging · sophisticated↔crude · reluctant↔willing · exacerbate↔alleviate · sceptical↔convinced · excessive↔moderate · ulterior↔overt · restless↔patient · attenuated↔strengthened · mobile↔immobile · speculative↔safe
12	빈칸 추론	영국 평균 보유 기간 5년 → 1년 미만 – 법적 주인이지만 진짜 주인이라 하기 어렵다(118쪽 ¶2) / limited to what they had invested(117쪽 ¶2) / too cold for most spices to grow(116쪽 ¶4) / the real reason for my complaint(115쪽 ¶4)
13	문장 삽입	스미스와 마르크스(117쪽 ¶5~118쪽 첫 줄): 회의론 → 스미스의 비판 → 저자: 사실이지만 대규모 자본 동원 → 마르크스의 찬사 → 숨은 동기(He did so ~) → 그의 이론
14	무관한 문장	'body'가 없다는 불평과 다섯 향신료(115쪽 ¶4~¶6)에 같은 장의 다른 대목(영국 동인도 회사, 117쪽 ¶3) 끼워 넣기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5	순서 배열	무한 책임에서 유한 책임으로(117쪽 ¶1~¶2): 보상은 크지만 투자를 꺼림 → 전 재산을 잃는 무한 책임 → 채무자 감옥까지 → 해법 = 유한 책임
16	요약문 완성	주주의 선택지 제한(119쪽 ¶2): 투기적 금융 상품 규제 강화 → '한탕' 기회 감소 → 장기적 헌신의 유인 증가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숫자 · 나라 · 연도 · 인물 · 비율 · 명칭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6개월(한국 음식) · 2주(남아시아 음식) · 1980년대 후반(소호의 타이 음식) · 1987(이탈리아 첫 방문) · 다섯 향신료(날것으로 본 것은 셋) · 처음 30년 · 1600(영국 동인도 회사) · 1602(네덜란드) · 19세기 후반(특권 → 권리) · 19세기 중반(마르크스) · 5년 → 1년 미만(영국 평균 보유 기간) · 90~95% · 절반 미만(1980년대 이전) · 2년 넘게 보유하면 1표 더(프랑스 · 이탈리아) · 주당 20표(저자가 든 상한의 예) · 각주 i의 10곳 중 8곳 이상 · 95%. 1600은 영국, 1602는 네덜란드다. 인물과 지명도 많다(Nisha Katona · Adam Smith · Karl Marx · Columbus · Sylhet · 스리랑카 · 남인도 · 인도네시아 · 프랑스 · 이탈리아).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처음엔 싫어함 ↔ 곧바로 좋아함, 다섯 ↔ 셋, 변호사 → 요리사 ↔ 요리사 → 변호사, 최초의 유한 책임 회사가 아님 ↔ 최초, 1600 ↔ 1602, 특권 ↔ 권리, 비난(스미스) ↔ 칭송(마르크스), 5년 → 1년 미만 ↔ 늘어남, 90~95% ↔ 절반 미만, 개혁 ↔ 폐지). 저자의 짐작(must have been · it seems)과 추정(are estimated)을 사실로 바꾼 선지와, 저자의 제안(need to · should · perhaps)을 이미 이루어진 일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Spices」 (115~119쪽)

논증형(남아시아 음식이라는 예외 → 처음엔 싫었던 까닭 → 다섯 가지 향신료 → 향신료광 → 조상 원망과 반성 → 동인도 → 향신료 탐색과 주식회사 → 무한 책임의 위험 → 유한 책임과 동인도 회사 → 특권 → 스미스의 비판 · 마르크스의 칭송 → 중화학 공업과 권리 → 금융 규제 완화와 조급한 주주 → 배당 · 자사주 매입 90~95% → 개혁 셋(tenure voting · 이해관계자 · 금융 규제) → 결론: 같은 향신료, 같은 제도도 맥락에 따라). 핵심 축은 **무한 책임 vs 유한 책임**, 그리고 **진보의 수단 vs 진보의 걸림돌**.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15 [제목]	요리	Monkfish in curried clam broth(저자의 요리) – 아귀(또는 단단한 흰살생선)에 커리 조개 국물
115 ¶1~¶2	도입	특정 음식을 갈망하지 않음(한국 음식 없이도 6개월) / 예외 하나 – '인도', 아니 남아시아 음식
115 ¶3	아이러니	처음엔 남아시아 음식을 싫어함 / 타이 · 그리스 · 이탈리아 음식은 곧바로 좋아함
115 ¶4	불평의 까닭	'body'가 없다는 불평 – 감칠맛 부족이었을 것(짐작) / 진짜 까닭 = 수많은 향신료의 복잡한 감각
115 ¶5~¶6	다섯 향신료	영국에 오기 전 아는 향신료는 다섯뿐 / 오향 돼지고기도 먹은 셈이 아님
115 ¶7~116 ¶1	향신료광	향신료를 깊이 사랑하게 됨 / 간소화한 남아시아 요리 · 마살라 차이
116 ¶2	쓰임	후추(스튜 · 파스타) · 크럼블(정향 · 카다멈 · 계피) · 사프란 리소토 · 치즈 토스티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16 ¶3~¶4	원망 → 반성	조상을 원망 / 너무 추운 땅 · 향신료 땅을 침략할 의지(능력)도 없었음
116 ¶5	동인도	유럽이 가장 귀히 여긴 향신료 넷은 '동인도'에서만 자람 / 119쪽 각주 iii
116 ¶6	전환	향신료 탐색 → 항로 발견(잘 알려짐) · 주식회사 = 유한 책임 회사(덜 알려짐)
117 첫 줄~¶1	무한 책임	대양 두세 개 횡단 = 화성 탐사선 / 실패하면 전 재산 · 채무자 감옥
117 ¶2~¶3	해법	유한 책임 → 위험 감소 · 거액 동원 / 영국(1600) · 네덜란드(1602) 동인도 회사
117 ¶4	특권	19세기 후반까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고위험 사업에만 준 특권
117 ¶5~118 첫 줄	스미스 · 마르크스	스미스: '남의 돈'으로 도박 / 저자: 사실이지만 대규모 자본 동원 / 마르크스의 칭송(숨은 동기)
118 ¶1	권리로	중화학 공업의 대규모 투자 → 19세기 후반 권리로 → 자본주의 발전의 주된 수단
118 ¶2~¶3	걸림돌로	금융 규제 완화 → 보유 기간 5년 → 1년 미만 / 이윤의 90~95%를 주주에게 → 투자 약화
118 ¶4~¶5	개혁 1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은 줄이자 / 장기 보유 장려 — tenure voting 강화
119 ¶1~¶2	개혁 2 · 3	이해관계자에게 더 큰 발언권 / 금융 규제 강화로 주주의 선택지 제한
119 ¶3~¶4	결론	금융화 시대에 진보의 수단에서 걸림돌로 / 같은 향신료가 어떤 요리는 살리고 어떤 요리는 망치듯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첫 남아시아 음식	그때의 불평 — 'body'가 없음(감칠맛 부족이었을 것)	돌아본 진짜 까닭 — 수많은 향신료의 복잡하고 낯선 감각
새 음식과의 첫 만남	타이 · 그리스 · 이탈리아 — 곧바로 좋아함	남아시아 — 처음엔 싫어함 · 지금은 2주만 못 먹어도 그리움
영국에 오기 전의 향신료	아는 것 — 후추 · 겨자 · 계피 · 생강 · 고추(다섯)	날것으로 본 것 — 계피 · 생강 · 고추뿐(후추는 가루, 겨자는 조제품)
조상에 대한 생각	원망 — 왜 정향 · 고수 씨로 요리할 줄 몰랐나	반성 — 너무 추운 땅 · 침략 · 점령할 의지(능력) 없음
향신료 탐색의 유산	잘 알려진 것 —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항로 발견	덜 알려진 것 — 주식회사(유한 책임 회사)
무한 책임 vs 유한 책임	무한 — 투자금 + 집 · 가구 · 냄비까지 · 채무자 감옥	유한 — 투자한 몫(주식)까지만 · 거액 동원 가능
유한 책임의 지위	19세기 후반까지 — 왕실 · 정부가 고위험 사업에만 준 특권	19세기 후반 이후 — 최소 기준만 갖추면 누리는 권리
유한 책임 평가	Adam Smith — '남의 돈'으로 도박 · 과도한 위험(저자: 전적으로 사실)	Karl Marx — '최고로 발전한 자본주의적 생산'(숨은 동기)
주주의 모습	과거 — 1960년대 영국 평균 보유 5년 · 이윤 분배 절반 미만(1980년대 이전)	오늘날 — 1년 미만 · 배당 · 자사주 매입 90~95% (미국 · 영국)
유한 책임의 역할	한때 — 경제 진보의 강력한 수단	금융화 시대 — 경제 진보의 걸림돌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개혁의 방향	지킬 것 — 대규모 자본 동원이라는 장점	줄일 것 — 해로운 부작용(조급한 주주 · 투자 약화)
같은 것, 다른 결과	향신료 — 어떤 요리는 살리고 어떤 요리는 망침	제도 — 어떤 맥락에서는 잘 작동하고 다른 맥락에서는 큰 문제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Spices ([제목])	Monkfish in curried clam broth(저자의 요리) · 아귀(또는 단단한 흰살생선)에 커리 조개 국물을 곁들임
음식 취향	특정 음식을 갈망하지 않음 · 한국 음식 없이 **6개월**도 거뜬(대학원생 시절 자주 그랬음) · 이탈리아 · 멕시코 · 일본 음식도 규칙적으로 먹을 필요 없음
유일한 예외	'인도' 음식, 아니 남아시아 음식 — **2주**쯤 못 먹으면 그리움
119쪽 각주 i	영국 '인도' 식당 **10곳 중 8곳 이상**을 방글라데시계가 운영 · 그중 **95%**가 실헷(Sylhet) 한 지방 출신으로 추정 / A. Gillan, Guardian, 2002년 6월 21일 → 그래서 '남아시아' 음식이라 부름
첫 만남	타이 음식 — **1980년대 후반** 소호(Soho)의 타이 식당 · 그리스 음식(무사카 · 타라마살라타 · 루카니코 소시지) — 곧바로 좋아함 / 이탈리아 — **1987년** 첫 방문 때 '외국' 음식이라는 느낌조차 없음
'body'가 없다는 불평	(남아시아계가 아닌) 친구들에게 한 불평 · 감칠맛 부족(간장이 없고 마늘이 모자람)이 무의식적으로 불만이었을 것(저자의 짐작) / 진짜 까닭 = 수많은 향신료의 복잡하고 낯선 감각을 감당하지 못함
다섯 향신료	영국에 오기 전: 후추 · 겨자 · 계피 · 생강 · 고추 / 날것으로 본 것은 계피 · 생강 · 고추뿐 · 후추는 회색 가루 · 겨자는 English mustard 비슷한 조제품(더 순하고 달았음)
오향(wuxiang) 돼지고기	몇 번 먹었지만 별로 · 다섯 향신료(팔각 · 정향 · 계피 · 쓰촨 후추 · 회향 씨)를 알아보지 않음 → 먹지 않은 것과 다름없음
사랑하게 된 향신료	고수 씨 · 겨자 씨 · 커민 · 정향 · 육두구 · 메이스(육두구 껍질) · 팔각 · 회향 씨 · 캐러웨이(jeera) · 사프란 · 카다멈 · 타마린드 · 아위(asafoetida) 등
spice fiend	남아시아 요리는 간소하게 — 주로 간 고수 씨 · 회향 씨 · 커민(정통 향신료는 벅차고 불필요) · 좋아하는 음료 = 마살라 차이(우유 · 생강 · 카다멈 등을 넣고 끓인 단 차)
향신료의 쓰임(116쪽 ¶2)	후추 → 스튜 · 파스타 / 크럼블(사과 · 대황이 가장 좋음) → 정향 · 카다멈 꼬투리 · 계피, 가끔 통후추 / 리소토 → 사프란 한 꼬집뿐 / 치즈 토스티 → Nisha Katona(변호사였다가 요리사가 된 영국계 인도인)의 조리법
119쪽 각주 ii	저자의 단골 육수: 닭 뼈 · 셀러리 · 양파 · Swiss Marigold 채소 육수 가루 · 멸치젓(myulchi-jut) 조금(「Anchovy」)
조상 원망과 반성	인생의 처음 **30년** 동안 놓친 것 → 조상 원망 · 정향 = 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향신료 / 유라시아 대륙 북동쪽 구석 · 너무 추움 · 유럽인과 달리 침략 · 점령할 의지(또는 능력)가 없었음
동인도(East Indies)	유럽이 가장 귀히 여긴 후추 · 정향 · 계피 · 육두구가 자라던 곳 = 남아시아(특히 스리랑카 · 남인도) · 동남아시아(특히 인도네시아)
119쪽 각주 iii	콜럼버스 등 초기 유럽 침략자들이 아메리카를 인도로 여김 → 유럽인은 유럽 · 아프리카 · 중동 · 중국을 밴 세계를 모두 인도로 여긴 듯(저자의 추측)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향신료 무역의 위험	범선으로 대양 두세 개(대서양 · 인도양 · 인도네시아라면 태평양) = 조금 과장하면 화성 탐사선을 보내고 무사히 되돌려 받는 일 / 실패하면 투자금 + 재산(집 · 가구 · 냄비까지) · 채무자 감옥
유한 책임	책임을 투자한 몫(주식)까지로 제한 → 위험이 크게 줄고 많은 투자자를 모아 거액 동원
동인도 회사	영국 **1600년** · 네덜란드 **1602년** / 최초의 유한 책임 회사는 아님 · 향신료 수입과 식민지 운영(각각 인도 · 인도네시아)의 성공이 결정적 힘
특권에서 권리로	**19세기 후반**까지 왕실(절대 왕정 뒤엔 정부)이 원거리 무역 · 식민지 확장 같은 고위험 사업에만 준 특권 → 19세기 후반 대부분 나라에서 권리(최소 기준 충족이 조건)
Adam Smith	'경제학의 아버지' · 경영자가 '남의 돈'으로 도박한다며 유한 책임 회사를 비난 · 회사를 100% 소유하지 않아 실패의 비용을 다 지지 않으므로 과도한 위험을 무릅씀
Karl Marx	'자본주의의 천적' · 유한 책임 회사를 '최고로 발전한 자본주의적 생산'이라 칭송(**19세기 중반**) · 숨은 동기: 자본주의가 빨리 발전하면 사회주의도 빨리 옴
중화학 공업	철강 · 기계 · 산업 화학 · 제약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 → 사례마다 따로 허가해서는 감당 불가
금융화의 결과	영국 평균 주식 보유 기간 **1960년대 5년 → 오늘날 1년 미만** / 미국 · 영국에서 지난 20여 년 배당 ·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에게 간 이윤 **90~95%**(1980년대 이전 절반 미만) → 투자 재원인 사내 유보 이윤 감소
개혁안 셋	① tenure voting 강화(프랑스 · 이탈리아는 약한 형태, 예: **2년** 넘게 보유하면 1표 더 / 저자: 1년 더 보유할 때마다 1표, 상한은 이를테면 주당 **20표**) ② 노동자 · 투입물 공급자 · 지역 공동체에 더 큰 발언권 ③ 투기적 금융 상품 규제 강화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dible Economics · 「Spices」 (원서 PDF 115~119쪽) · 5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15-1 처음엔 싫었던 남아시아 음식 – 'body'가 없다는 불평과 다섯 향신료 115쪽 ¶1~¶6

원문 위치 원서 115쪽 ¶1~¶6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15쪽 [제목]	Monkfish in curried clam broth (my recipe)	저자의 요리 — 아귀(또는 단단한 흰살생선)에 커리 조개 국물
★	115쪽 ¶1 첫 문장	I don't have cravings for any particular cuisine – not even Korean	도입 · 어휘(craving)
★	115쪽 ¶1 둘째 문장	I can happily go without eating Korean food for six months (and I often did when I was a graduate student)	go without + -ing · 대동사 did · 숫자
▲	115쪽 ¶1 셋째 문장	Nor do I need to eat Italian, Mexican or Japanese food regularly, even though these are favourites	Nor + 조동사 + 주어 도치 · 지칭(these)
◆	115쪽 ¶2 첫 문장	There is one exception: 'Indian' food – or rather South Asian food	or rather · 119쪽 각주 i
◆	119쪽 각주 i	more than eight out of ten 'Indian' restaurants in the UK are run by people of Bangladeshi origin, 95% of whom are estimated to be from … Sylhet	숫자 · 추정(are estimated) — 일치
★	115쪽 ¶3 첫 문장	It's ironic: I disliked South Asian food when I first tried it	아이러니 · 지칭 문항의 바탕
★	115쪽 ¶3 셋째~다섯째 문장	Thai food … in Soho back in the late 1980s … Greek food … was an instant hit … Italy during my first visit there in 1987	시기 · 장소 — 일치 함정
◆	115쪽 ¶4 첫 문장	I complained that South Asian food lacked 'body'	밑줄 의미
▲	115쪽 ¶4 둘째 문장	I must have been unhappy at a subconscious level about the relative lack of umami flavour	must have p.p. — 저자의 짐작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15쪽 ¶4 셋째 문장	the real reason for my complaint was that I couldn't handle the complex and unusual sensations that the multitude of spices … hit me with	분사구문 thinking back · 요지
★	115쪽 ¶5 첫 문장	Until I came to Britain, I had known only five spices – black pepper, mustard, cinnamon, ginger and chilli	과거완료 · 서답형 단어의 출처
★	115쪽 ¶5 둘째 문장	I had seen only cinnamon, ginger and chilli in their raw forms	일치 함정(다섯 중 셋)
▲	115쪽 ¶6 둘째 문장	didn't bother to find out what those five spices were … so it was as good as not having consumed them at all	as good as + 동명사 · 밑줄 의미

내용

이 책을 여기까지 읽은 독자라면 알겠지만 저자는 특정 음식을 갈망하지 않는다. 한국 음식조차 그렇다. 한국 음식을 먹지 않고도 여섯 달은 거뜬히 지낼 수 있고, 대학원생 시절에는 실제로 자주 그랬다. 이탈리아 · 멕시코 · 일본 음식을 좋아하지만 그것들도 규칙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 '인도' 음식, 아니 더 정확히는 남아시아 음식이다. 저자는 남아시아 음식을 2주쯤 먹지 않으면 그리워진다(119쪽 각주 i: '인도'에 따옴표를 붙이는 까닭은 영국의 '인도' 식당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을 방글라데시계 사람들이 운영하고 그중 95%가 그 나라의 한 지방인 실헷 출신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며,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남아시아' 음식이라 부른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자는 처음 먹었을 때 남아시아 음식을 싫어했다. 다른 새로운 음식은 대부분 곧바로 좋아했다. 1980년대 후반 소호의 한 타이 식당에서 처음 먹은 타이 음식에 홀딱 반했고, 무사카 · 타라마살라타 · 루카니코 소시지 같은 그리스 음식도 단번에 마음에 들었으며, 1987년 이탈리아를 처음 찾았을 때는 '외국' 음식을 먹는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다. 그러나 '인도' 음식은 아니었다. 저자는 (남아시아계가 아닌) 친구들에게 남아시아 음식에 'body'가 없다고 불평했다. 정확히 무슨 말을 하려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저자는 자신이 먹어 본 요리들에 감칠맛이 – 간장이 없고 마늘이 모자라서 – 비교적 부족한 것이 무의식적으로 불만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불평의 진짜 까닭은 남아시아 요리에 든 수많은 향신료가 안기는 복잡하고 낯선 감각을 감당하지 못한 데 있었다고 생각한다. 영국에 오기 전까지 저자가 알던 향신료는 후추 · 겨자 · 계피 · 생강 · 고추 다섯 가지뿐이었고, 그 가운데 날것의 모습을 본 것은 계피 · 생강 · 고추뿐이었다. 후추는 통후추가 아니라 회색빛 먼지 같은 가루였고, 겨자는 English mustard와 비슷한 (그러나 더 순하고 단) 조제품이었다. 물론 중국의 '오향(wuxiang) 돼지고기'를 몇 번 먹기는 했다. 그러나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 다섯 향신료가 무엇인지 알아보지도 않았으니(궁금해할 독자를 위해 밝히면 팔각 · 정향 · 계피 · 쓰촨 후추 · 회향 씨다), 그것들을 전혀 먹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어법

- I can happily go without eating Korean food for six months (and I often did when I was a graduate student) : go without + 동명사 = ~ 없이 지내다. did = go without eating Korean food for six months를 대신하는 대동사(과거 시제).
- Nor do I need to eat Italian, Mexican or Japanese food regularly, even though these are favourites : 부정어 Nor가 문장 앞에 오면 조동사 + 주어 도치(Nor do I need; Nor I need는 오답). even though = 비록 ~이지만. these = Italian, Mexican and Japanese food.

- I didn't even sense I was eating 'foreign' food when I ate in Italy during my first visit there in 1987 : sense 뒤 접속사 that 생략. was eating = 과거진행(그때 먹고 있다는 것). there = in Italy.
- I don't know exactly what I was trying to say, but I must have been unhappy at a subconscious level about the relative lack of umami flavour : what I was trying to say = 간접의문문(know의 목적어). must have p.p. = ~했음에 틀림없다(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 저자도 확신하지는 못한다).
- However, thinking back, I think the real reason for my complaint was that I couldn't handle the complex and unusual sensations that the multitude of spices in South Asian dishes hit me with : thinking back = 분사구문(돌이켜 보면). was that ~ = 보어 명사절. 끝의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hit me with의 목적어 sensations) — 전치사 with가 끝에 남았다.
- Until I came to Britain, I had known only five spices : had known = 과거완료(영국에 온 과거 시점 이전까지의 경험). until = ~할 때까지.
- black pepper was greyish, dusty powder, rather than peppercorns, and mustard came in a preparation similar to that of English mustard : A rather than B = B가 아니라 A. similar to ~ = preparation을 뒤에서 꾸미는 형용사구. that = the preparation(앞 명사의 반복을 피하는 대명사).
- didn't bother to find out what those five spices were ..., so it was as good as not having consumed them at all : bother to V = 굳이 ~하다(부정문에서 '애써 ~하지 않다'). as good as + 동명사 = ~한 것이나 다름없는. not having consumed = 완료 동명사의 부정(not을 앞에).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raving	갈망	longing	aversion
cuisine	요리(법)	cookery	—
exception	예외	anomaly	rule
ironic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paradoxical	—
affection	애정	fondness	dislike
head over heels	홀딱 빠져	completely	—
instant	즉각적인	immediate	gradual
subconscious	잠재의식의	unconscious	conscious
umami	감칠맛	savouriness	—
want (n.)	부족	lack	abundance
multitude	다수	host	handful
preparation	조제품	mixture	—
keen on	~을 좋아하는	fond of	averse to
bother to V	굳이 ~하다	take the trouble	—

내용 일치 저자의 요리 = 커리 조개 국물을 곁들인 아귀(또는 단단한 흰살생선) / 특정 음식을 갈망하지 않음 · 한국 음식 없이 6개월(대학원생 시절 자주) · 이탈리아 · 멕시코 · 일본 음식도 꼭 먹을 필요 없음 / 예외 = 남아시아 음식 · 2주쯤 못 먹으면 그리움 · 각주 i: 영국 '인도' 식당 10곳 중 8곳 이상이 방글라데시계 · 그중 95%가 실헷 출신(추정) / 처음엔 싫어함 · 타이 음식(1980년대 후반 소호) · 그리스 음식 · 이탈리아(1987년 첫 방문)는 곧바로 좋아함 / 'body'가 없다는 불평 — 감칠맛 부족(간장 · 마늘)이 불만이었을 것(짐작) · 진짜 까닭 = 수많은 향신료의 복잡하고 낯선 감각 / 영국에 오기 전 향신료 다섯(후추 · 겨자 · 계피 · 생강 · 고추) · 날것으로 본 것은 셋(계피 · 생강 · 고추) / 오향 돼지고기는 몇 번 먹었지만 별로 · 다섯

향신료를 알아보지 않음 → 먹지 않은 것과 다름없음. **밑줄 의미** not even Korean = 고향 음식조차 갈망하지 않을 만큼 음식 취향이 무던함 / 'Indian' food – or rather South Asian food = 영국의 '인도' 식당은 대부분 방글라데시계가 운영하므로 더 정확한 이름으로 고쳐 부름 / It's ironic = 지금 유일하게 그리운 음식을 처음엔 싫어했음 / lacked 'body' = 무엇이 모자란지 말로 짚지 못한 막연한 불만 / as good as not having consumed them at all = 무엇을 먹는지도 모르고 먹었으니 그 향신료들을 겪었다고 할 수 없음 / 지칭: 115쪽 ¶1 these(are favourites) = 이탈리아 · 멕시코 · 일본 음식 · did = 한국 음식 없이 여섯 달을 지냄 / 115쪽 ¶2 it(I miss it) = South Asian food / 115쪽 ¶3 it(첫 문장) = South Asian food · it(셋째 문장) = Thai food · there = Italy / 115쪽 ¶6 it(keen on it) = 오향 돼지고기 · they · them = 그 다섯 향신료.

> **한 줄 요약** 지금은 유일하게 그리운 남아시아 음식을 저자는 처음에 싫어했는데, 영국에 오기 전 향신료를 다섯 가지밖에 몰라 수많은 향신료의 복잡한 감각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5-2 향신료광이 된 저자 – 조상 원망에서 '동인도'까지 115쪽 ¶7 ~ 116쪽 ¶5

원문 위치 원서 115쪽 ¶7 ~ 116쪽 ¶5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15쪽 ¶7 (116쪽 첫 줄까지)	I came to appreciate and then fall deeply in love with the complex of flavours, aromas and sensations that the huge gamut of spices give to South Asian dishes	come to V 병렬 · 전환
★	116쪽 첫 줄	coriander seeds, mustard seeds, cumin, clove, nutmeg, mace (the shell of nutmeg), … caraway (jeera), … asafoetida	향신료 목록 – 일치
◆	116쪽 ¶1 첫 문장	Today, I am a spice fiend.	밑줄 의미 · 어휘(fiend)
★	116쪽 ¶1 둘째 문장	I make pared-down versions of South Asian dishes … as I find the use of the authentic range of spices a bit daunting and unnecessary	find + O + 형용사 · 어휘(daunting)
★	116쪽 ¶1 셋째 문장	Masala chai, sweet South Asian tea boiled with milk and ginger, cardamom and various other spices, is a favourite drink	동격 · 주어와 동사의 거리
▲	116쪽 ¶2 첫 문장	It is not just South Asian dishes for which I use spices	It is ~ for which 강조
★	116쪽 ¶2 셋째~넷째 문장	I lace the filling with ridiculous quantities of cloves, cardamom pods and cinnamon … Sometimes I throw in black peppercorns as well, to increase the heat	크럼블 – 일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16쪽 ¶2 다섯째 문장	I make risotto only with a pinch of saffron – as long as I use a good stock, it doesn't need anything else	as long as · 119쪽 각주 ii(육수)
★	116쪽 ¶2 여섯째 문장	(I use the recipe by the British-Indian lawyer-turned-chef Nisha Katona)	인물 – 일치 함정(변호사 → 요리사)
★	116쪽 ¶3 첫~둘째 문장	I could not believe what I had missed for the first three decades of my life. I cursed my ancestors.	과거완료 · 숫자(30년)
▲	116쪽 ¶3 넷째 문장	Wouldn't Korean food have been more sophisticated and interesting, had we used star anise and fennel seeds?	if를 생략한 도치 가정법 · 수사 의문문
◆	116쪽 ¶4 첫 문장	Then I realized that I was being unfair.	전환 · 요지 1순위
★	116쪽 ¶4 둘째~셋째 문장	stuck in the north-eastern corner of the Eurasian continent, where it is too cold for most spices to grow … unlike the Europeans, they didn't have the willingness (or the ability) to invade and occupy the spice lands	too ~ for … to V · 지리와 의지
★	116쪽 ¶5	black pepper, clove, cinnamon and nutmeg – used to grow only in what used to be called the 'East Indies'	used to · 일치 · 119쪽 각주 iii

내용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자는 남아시아 요리에 엄청나게 다양한 향신료 – 고수 씨, 겨자 씨, 커민, 정향, 육두구, 메이스(육두구의 껍질), 팔각, 회향 씨, 캐러웨이(jeera), 사프란, 카다멈, 타마린드, 아위 등 – 가 더해 주는 풍미 · 향 · 감각의 복합체를 높이 평가하게 되었고, 이어서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오늘날 저자는 '향신료광(spice fiend)'이다. 정통 향신료를 다 갖춰 쓰는 것은 조금 벅차고 (식당 음식이든 기성품이든 훌륭한 남아시아 음식을 구할 수 있으니) 불필요하다고 여겨, 주로 간 고수 씨 · 회향 씨 · 커민을 써서 남아시아 요리를 간소하게 만든다. 우유와 생강 · 카다멈 등 여러 향신료를 넣고 끓인 달콤한 남아시아 차, 마살라 차이는 저자가 좋아하는 음료다. 저자가 향신료를 쓰는 것은 남아시아 요리만이 아니다. 저자가 만드는 스튜와 파스타 대부분에는 통후추든 간 후추든 후추가 듬뿍 들어간다. 크럼블(가장 좋아하는 속은 사과와 대황이지만 사과만 넣거나 자두를 넣기도 한다)을 만들 때는 속에 정향 · 카다멈 꼬투리 · 계피(가루나 껍질)를 터무니없이 많이 넣고, 가끔은 매운맛을 더하려고 통후추까지 넣는다. 리소토에는 사프란 한 꼬집만 넣는다. 좋은 육수만 쓰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119쪽 각주 ii: 저자의 단골 육수는 닭 뼈 · 셀러리 · 양파 · Swiss Marigold 채소 육수 가루에 한국의 멸치젓을 조금 넣은 것이다). 최근에는 간 고수 씨와 고춧가루를 듬뿍 넣고 다진 양파 · 마늘 · 고수 잎을 더한 남아시아식 '치즈 토스티'에 푹 빠졌는데, 변호사였다가 요리사가 된 영국계 인도인 Nisha Katona의 조리법을 쓴다. 향신료로 '개종'하고 나자 저자는 인생의 처음 30년 동안 무엇을 놓쳤는지 믿기지 않았고, 조상을 원망했다. 왜 정향(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향신료)과 고수 씨 같은 멋진 재료로 요리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을까? 팔각과 회향 씨를 썼더라면 한국 음식이 더 세련되고 흥미롭지 않았을까? 그러다 저자는 자신이 불공평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상들은 대부분의 향신료가 자라기에는 너무 추운 유라시아 대륙의 북동쪽 구석에 갇혀 있었다. 게다가 유럽인과 달리 향신료가 나는 땅을 침략해 점령할 의지(또는 능력)도 없었다. 유럽에서 가장 귀하게 여긴 향신료인 후추 · 정향 · 계피 · 육두구는 예전에 '동인도'라 불리던 곳, 곧 남아시아(특히 스리랑카와 남인도)와 동남아시아(특히 인도네시아)에서만 자랐다(119쪽 각주 iii: 콜럼버스를 비롯한 초기 유럽 침략자들이 아메리카를 인도로 여긴 것을 보면, 유럽인은 유럽 · 아프리카 · 중동 · 중국을 뺀 세계를 모두 인도로 여긴 듯하다).

어법

- **Over time, however, I came to appreciate and then fall deeply in love with the complex of flavours, aromas and sensations that the huge gamut of spices give to South Asian dishes** : come to V = ~하게 되다(appreciate와 fall이 to에 병렬).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give의 목적어 the complex ...). 관계절의 동사는 원서 표기대로 give(the huge gamut of spices를 복수로 받았다).
- **I make pared-down versions of South Asian dishes, using mainly ground coriander seeds, fennel seeds and cumin, as I find the use of the authentic range of spices a bit daunting and unnecessary** : using ~ = 분사구문(~을 쓰면서). as = 이유의 접속사. find + O + 형용사(daunting and unnecessary) = O가 ~하다고 여기다.
- **It is not just South Asian dishes for which I use spices** : It is ~ that 강조 구문에서 that 대신 전치사 + which(for which)를 썼다 — use spices for South Asian dishes의 for가 앞으로 나왔다. not just = ~만이 아니다.
- **Generous quantities of black pepper, whether in whole corns or in ground form, go into most of the stews and pasta dishes I cook** : 주어 Generous quantities(복수) → go. whether A or B = A든 B든(삽입). I cook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I make risotto only with a pinch of saffron – as long as I use a good stock, it doesn't need anything else** : as long as = ~하기만 하면(조건). it = risotto.
- **Wouldn't Korean food have been more sophisticated and interesting, had we used star anise and fennel seeds?** : had we used = if we had used에서 if를 생략하고 도치(가정법 과거완료). 주절 would have p.p.와 짝. 부정의문문 형태의 수사 의문문(당연히 더 세련되었을 것 아닌가).
- **My ancestors were stuck in the north-eastern corner of the Eurasian continent, where it is too cold for most spices to grow** : where =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선행사 the north-eastern corner ...). too ~ for + 의미상 주어 + to V = ...가 ~하기에는 너무 ~한. 지금도 사실이라 현재 시제 is.
- **The spices that have been most prized in Europe ... used to grow only in what used to be called the 'East Indies'** : used to V = (예전에는) ~했다(지금은 아님). what used to be called = 예전에 ~라고 불리던 곳(관계대명사 what). 주어 The spices → 복수.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ppreciate	진가를 알다	value	disdain
gamut	전 범위	range	—
aroma	향	fragrance	stench
fiend	광, 열렬한 애호가	fanatic	—
pared-down	간소화한, 군더더기를 뺀	simplified	elaborate
authentic	정통의, 진짜의	genuine	fake
daunting	벅찬, 기를 꺾는	intimidating	encouraging
lace (v.)	(맛을) 가미하다	flavour	—
liberal	넉넉한	generous	stingy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onversion	개종, 전향	change of heart	—
curse	원망하다, 저주하다	damn	bless
sophisticated	세련된	refined	crude
prized	귀하게 여겨지는	valued	worthless
occupy	점령하다	seize	liberate

내용 일치 시간이 지나며 향신료의 진가를 알고 깊이 사랑하게 됨(고수 씨 · 겨자 씨 · 커민 · 정향 · 육두구 · 메이스 · 팔각 · 회향 씨 · 캐러웨이 · 사프란 · 카다멈 · 타마린드 · 아위 등) / 오늘날 향신료광 · 남아시아 요리는 간소하게(주로 간 고수 씨 · 회향 씨 · 커민) — 정통 향신료는 벅차고 불필요(식당 음식 · 기성품이 훌륭) · 마살라 차이 / 후추 → 스튜 · 파스타 · 크럼블(사과 · 대황이 가장 좋음) → 정향 · 카다멈 꼬투리 · 계피, 가끔 통후추 · 리소토 → 사프란 한 꼬집(좋은 육수만 있으면 · 각주 ii) · 치즈 토스티 → Nisha Katona(변호사 → 요리사, 영국계 인도인)의 조리법 / 처음 30년 동안 놓친 것 → 조상 원망 · 정향 = 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향신료 / 반성: 대부분의 향신료가 자라기엔 너무 추운 유라시아 북동쪽 구석 · 유럽인과 달리 침략 · 점령할 의지(능력) 없음 / 유럽이 가장 귀히 여긴 후추 · 정향 · 계피 · 육두구 = 동인도(남아시아: 특히 스리랑카 · 남인도 /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만 자람 · 각주 iii: 유럽인은 유럽 · 아프리카 · 중동 · 중국을 뺀 세계를 인도로 여긴 듯(추측). **밑줄 의미** a spice fiend = 향신료를 지나칠 만큼 좋아하는 사람 — 처음과 정반대 / pared-down versions = 정통 향신료를 다 쓰지 않고 몇 가지로 줄인 요리 / ridiculous quantities = 스스로도 우스울 만큼 많이 / I cursed my ancestors = 향신료 없는 한국 음식이 아쉬워 탓할 곳을 찾음 / I was being unfair = 기후와 사정 때문이지 조상의 잘못이 아님 / the spice lands = 향신료가 나는 땅(동인도) — 유럽 침략의 대상 / 지칭: 116쪽 ¶2 it(doesn't need) = risotto / 116쪽 ¶3 they(didn't they learn) = my ancestors · we(had we used) = 한국 사람들 / 116쪽 ¶4 where = 유라시아 대륙의 북동쪽 구석 · they = my ancestors.

> **한 줄 요약** 향신료광이 된 저자는 향신료를 쓰지 않은 조상을 원망했지만, 향신료가 자라지 않는 추운 땅에서 향신료 땅을 침략할 의지(능력)도 없던 조상을 탓하는 것은 불공평했다고 깨닫는다.

15-3 향신료가 낳은 주식회사 — 무한 책임의 위험과 유한 책임 116쪽 ¶6 ~ 117쪽 ¶3

원문 위치 원서 116쪽 ¶6 ~ 117쪽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16쪽 ¶6 첫 문장	It is well known that the search for spices was a critical impetus behind the discovery of navigational routes from Europe to Asia	가주어 it · 잘 알려진 사실
◆	116쪽 ¶6 둘째 문장	Less well known is the fact that it also gave us the most important vehicle for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namely, the joint stock company, or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보어 도치 · 주제문 1순위
★	117쪽 첫 줄 첫 문장	In the beginning, the spice trade with the 'East Indies' was extremely risky for the Europeans	위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17쪽 첫 줄 둘째 문장	Traversing two, or even three, oceans … on a sailing ship was like, to exaggerate a bit, sending a Mars probe – and successfully getting it back – these days	동명사 주어 · 밑줄 의미 1순위
★	117쪽 ¶1 첫 문장	The rewards were fabulous, to be sure, but given the risk involved, investors were reluctant to sink money into the spice race	to be sure ~ but · given
▲	117쪽 ¶1 둘째 문장	the fact that if a business venture failed the investors could lose everything – not just the money they invested … but their properties (house, furniture, even pots and pans)	동격 that · not just A but B
★	117쪽 ¶1 셋째 문장	In more technical terms, their liabilities were unlimited.	무한 책임 — 순서 문항의 연결 고리
▲	117쪽 ¶1 넷째~다섯째 문장	Failing in a business venture could even cost businessmen their personal freedom … ended up in a debtors' prison	cost + IO + DO · end up in
◆	117쪽 ¶2 둘째~셋째 문장	A solution was found in offering investors limited liability … their liability would be limited to what they had invested in the venture (their 'shares')	해법 · 빈칸 후보
★	117쪽 ¶2 넷째 문장	This hugely reduced the risk …, enabling those who were organizing high-risk ventures to mobilize huge sums of money by recruiting a large number of investors	분사구문 enabling + O + to V
▲	117쪽 ¶3 첫 문장	So began companies like the English East India Company (founded in 1600) and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1602)	So + 동사 + 주어 도치 · 연도
★	117쪽 ¶3 둘째 문장	They were actually not the first limited liability companies, but their successes … gave the institution of limited liability a critical boost	일치 함정(최초가 아님)
★	117쪽 ¶3 둘째 문장 괄호	(yes, companies, rather than countries, had colonies in the early days)	respectively · 일치

내용

향신료 탐색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항로를 발견하게 한 결정적 원동력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덜 알려진 사실은 그것이 자본주의 발전의 가장 중요한 수단, 곧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다른 말로 유한 책임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처음에 '동인도'와의 향신료 무역은 유럽인에게 극도로 위험했다. 범선을 타고 두 개, 심지어 세 개의 대양(대서양, 인도양,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간다면 태평양까지)을 건너는 일은, 조금 과장하면 오늘날 화성 탐사선을 보내고 – 무사히 되돌려 받는 – 일과 같았다. 물론 보상은 엄청났지만 그에 따르는 위험을 생각하면 투자자들은 향신료 경쟁에 돈을 쏟아붓기를 꺼렸다. 사업이 실패하면 투자자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이 위험을 더 키웠다. 빌린 것을 모두 갚아야 했으므로 사업에 투자한 돈뿐 아니라 재산(집, 가구, 심지어 냄비와 프라이팬까지)도 잃을 수 있었다. 더 전문적인 말로 하면 그들의 책임은 무한했다. 사업에 실패하면 사업가가 개인의 자유까지 잃을 수 있었다. 가진 것을 모두 팔고도 채권자에게 다 갚지 못하면, 빚진 사업가는 결국 채무자 감옥에 갇혔다. 잠재적 투자자들이 향신료 무역처럼 아주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기를 꺼린 것은 당연했다. 해법은 투자자에게 유한 책임을 주는 데서 찾았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자신의 책임이 가진 것 전부가 아니라 그 사업에 투자한 몫(그들의 '주식')까지로 제한된다는 보장을 받았다. 이로써 잠재적 투자자가 지는 위험이 크게 줄었고, 고위험 사업을 조직하는 사람들은 많은 투자자를 모아 막대한 돈을 끌어모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영국 동인도 회사(1600년 설립)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1602년) 같은 회사들이 시작되었다. 이들이 사실 최초의 유한 책임 회사는 아니었지만, 동인도에서 향신료를 들여오고 마침내 각각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식민지를 운영하는 데 성공함으로써(그렇다, 초기에는 나라가 아니라 회사가 식민지를 가졌다) 유한 책임이라는 제도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 주었다.

어법

- **It is well known that the search for spices was a critical impetus behind the discovery of navigational routes from Europe to Asia** :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impetus behind ~ = ~의 원동력.
- **Less well known is the fact that it also gave us the most important vehicle for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namely, the joint stock company** : 보어(Less well known)가 앞으로 나가 동사 + 주어가 도치(= The fact ... is less well known). that = 동격 접속사. it = the search for spices. give + IO(us) + DO. namely = 곧.
- **Traversing two, or even three, oceans ... on a sailing ship was like, to exaggerate a bit, sending a Mars probe – and successfully getting it back – these days** : 동명사구 주어(Traversing ...) → 단수 was. like + 동명사(sending · getting). to exaggerate a bit = 독립 부정사(조금 과장하자면).
- **The rewards were fabulous, to be sure, but given the risk involved, investors were reluctant to sink money into the spice race** : to be sure ~ but = 물론 ~이지만(양보). given ~ = ~을 고려하면. involved = risk를 뒤에서 꾸미는 과거분사. be reluctant to V = ~하기를 꺼리다.
- **The risk was further exacerbated by the fact that if a business venture failed the investors could lose everything – not just the money they invested in the venture, but their properties** : the fact that = 동격 that 절. not just A but B = A뿐 아니라 B도. they invested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Failing in a business venture could even cost businessmen their personal freedom** : 동명사구 주어 → 단수 취급. cost + IO(businessmen) + DO(their personal freedom) = ~에게 …을 잃게 하다(4형식).
- **This hugely reduced the risk that potential investors faced, enabling those who were organizing high-risk ventures to mobilize huge sums of money by recruiting a large number of investors** :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faced의 목적어). enabling = 결과의 분사구문. enable + O + to V. by + 동명사 = ~함으로써.
- **So began companies like the English East India Company (founded in 1600) and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1602)** : So(그렇게 해서) + 동사(began) + 주어(companies ...) 도치 – 주어가 길어 뒤로 갔다. founded in 1600 = 과거분사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mpetus	원동력, 자극	stimulus	deterrent
navigational	항해의	nautical	—
vehicle	수단, 매개체	means	—
traverse	가로지르다	cross	—
exaggerate	과장하다	overstate	understate
probe	탐사선	spacecraft	—
fabulous	엄청난	tremendous	modest
reluctant	꺼리는	unwilling	willing
exacerbate	악화시키다	aggravate	alleviate
liability	(법적) 책임, 부채	obligation	asset
creditor	채권자	lender	debtor
mobilize	동원하다	raise	—
respectively	각각	severally	—
boost	힘, 촉진	push	setback

내용 일치 향신료 탐색 =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항로 발견의 결정적 원동력(잘 알려짐) · 자본주의 발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주식회사(유한 책임 회사)도 낳음(덜 알려짐) / 처음엔 극도로 위험 · 범선으로 대양 두세 개(대서양 · 인도양 · 인도네시아라면 태평양) · 조금 과장하면 화성 탐사선을 보내고 무사히 되돌려 받기 / 보상은 엄청났지만 투자를 꺼림 · 실패하면 투자금 + 재산(집 · 가구 · 냄비까지) · 무한 책임 · 채무자 감옥 / 해법 = 유한 책임: 책임을 투자한 몫(주식)까지로 → 위험 크게 감소 · 많은 투자자를 모아 거액 동원 / 영국 동인도 회사(1600) ·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1602) · 최초의 유한 책임 회사는 아님 · 향신료 수입과 식민지 운영(각각 인도 · 인도네시아)의 성공이 결정적 힘 · 초기엔 나라가 아닌 회사가 식민지를 가짐. **밑줄 의미** the most important vehicle for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 주식회사가 자본주의를 키운 핵심 장치 / sending a Mars probe – and successfully getting it back = 성공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하고 어려운 일 / the spice race = 향신료를 차지하려는 경쟁 / their liabilities were unlimited = 실패의 책임이 투자금을 넘어 전 재산 · 자유까지 / their 'shares' = 투자한 몫 = 책임의 한계 / a critical boost = 동인도 회사의 성공이 유한 책임이라는 제도를 크게 밀어 줌 / 지칭: 116쪽 ¶6 it(also gave us) = the search for spices / 117쪽 첫 줄 it(getting it back) = a Mars probe / 117쪽 ¶1 they(were expected) = the investors · he(had sold) = the indebted businessman / 117쪽 ¶2 This(hugely reduced) = 유한 책임의 보장 / 117쪽 ¶3 They · their(successes) = 영국 ·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 **한 줄 요약** 향신료 무역은 실패하면 전 재산과 자유까지 잃는 무한 책임 때문에 투자를 모으기 어려웠고, 그 해법인 유한 책임이 동인도 회사들의 성공으로 결정적인 힘을 얻었다.

15-4 특권에서 권리로, 그리고 걸림돌로 — 스미스 · 마르크스와 조급한 주주 117쪽 ¶4 ~ 118쪽 ¶3

원문 위치 원서 117쪽 ¶4 ~ 118쪽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17쪽 ¶4	Limited liability is the norm today, but until the late nineteenth century, it used to be a privilege granted by the crown – and the government, when absolute monarchy ended – only to high-risk ventures of national importance	used to · 과거분사 granted · 시기
★	117쪽 ¶5 첫 문장	Many were sceptical of the idea, even for such exceptional cases	어휘(sceptical)
▲	117쪽 ¶5 둘째 문장	Among them was Adam Smith, the father of economics, who condemned limited liability companies on the grounds that it let their managers gamble with 'other people's money' (his words)	부사구 도치 · let + O + 원형 · on the grounds that
★	117쪽 ¶5 셋째 문장	such managers, who by definition did not own 100% of the companies, would always take excessive risk, because they did not have to bear the full costs of failure	스미스의 논리 — 일치
◆	117쪽 ¶6 첫 문장	This is absolutely true, but the point is that limited liability also lets us mobilize capital on a much larger scale than under unlimited liability	저자의 양보와 반박 · 삽입 문항의 바탕
◆	117쪽 ¶6 둘째 문장 (118쪽 첫 줄까지)	Karl Marx, the scourge of capitalism, sang praises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s 'capitalist production in its highest development', although he did so with the ulterior motive	대동사 did so · 밑줄 의미(ulterior motive)
▲	118쪽 첫 줄	faster development of capitalism would mean faster advent of socialism (as his theory was that socialism will emerge only after capitalism is fully developed)	동격 that · 그의 이론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18쪽 ¶1 첫 문장	the rise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that require large-scale investments – iron and steel, machines, industrial chemicals, pharmaceuticals and the like – made limited liability even more necessary	make + O + 형용사 · 어법 문항의 바탕
▲	118쪽 ¶1 둘째 문장	You simply cannot get away with issuing permits for limited liability on a case-by-case basis any more	get away with + -ing · not ~ any more
★	118쪽 ¶1 셋째~넷째 문장	most countries made limited liability a right (subject to meeting some minimum standards) rather than a privilege. Since then, ... the main vehicle of capitalist development	특권 → 권리 · 현재완료
◆	118쪽 ¶2 첫 문장	this once-mighty vehicle of economic progress has recently been turning into an obstacle to it	전환 · 밑줄 의미
★	118쪽 ¶2 둘째 문장	Financial deregulation ... has created so many financial opportunities that shareholders no longer have long-term commitments to companies they legally own	so many ~ that · 통합 사고 빈칸
★	118쪽 ¶2 셋째~넷째 문장	from five years in the 1960s to less than a year these days. If you cannot commit your money even for a year, can you really say that you share ownership in the company?	숫자 · 수사 의문문 — 빈칸 1순위
★	118쪽 ¶3 첫 문장	dividends and share buybacks (the practice in which companies buy their own shares and thus raise the share prices, so that shareholders can 'cash in' ...)	전치사 + which · 용어
★	118쪽 ¶3 둘째 문장	the proportion of corporate profit thus given to shareholders reached 90–95%, when it used to be less than half before the 1980s	숫자 — 일치 함정
▲	118쪽 ¶3 셋째 문장	given that retained profit ... is the major source of corporate investments, this change has seriously weakened the ability of companies to invest, especially in projects whose returns come in the long run (also see 'Lime')	given that · whose · 14장 연결

내용

오늘날 유한 책임은 당연한 것이지만,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그것은 왕실이 — 그리고 절대 왕정이 끝난 뒤에는 정부가 — 원거리 무역이나 식민지 확장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고위험 사업에만 내주던 특권이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조차 이 생각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 가운데 '경제학의 아버지' Adam Smith가 있었다. 그는 유한 책임이 경영자들에게 (그의 표현으로) '남의 돈'으로 도박하게 한다며 유한 책임 회사를 비난했다. 정의상 회사를 100% 소유하지 않는 경영자들은 실패의 비용을 온전히 떠안지 않아도 되므로 늘 지나친 위험을 무릅쓰리라는 논리였다. 저자는 이것이 전적으로 옳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핵심은 유한 책임 덕분에 무한 책임에서보다 훨씬 큰 규모로 자본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천적 Karl Marx도 유한 책임 회사를 '최고로 발전한 자본주의적 생산'이라고 칭송했다. 다만 거기에는 자본주의가 빨리 발전할수록 사회주의도 빨리 온다는 숨은 동기가 있었다(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완전히 발전한 뒤에야 나타난다는 것이 그의 이론이었다). 마르크스가 19세기 중반 이런 말을 한 직후, 철강 · 기계 · 산업 화학 · 제약처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중화학 공업'이 떠오르면서 유한 책임은 더욱 필요해졌다. 원거리 무역이나 식민지 사업만이 아니라 주요 산업 대부분이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한다면, 유한 책임 허가를 사례마다 따로 내주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그 결과 19세기 후반 대부분의 나라가 유한 책임을 (몇 가지 최소 기준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특권이 아닌 권리로 만들었고, 그 뒤로 유한 책임 회사(또는 법인)는 자본주의 발전의 주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한때 막강했던 이 경제 진보의 수단이 최근에는 오히려 진보의 걸림돌로 바뀌고 있다. 지난 수십 년의 금융 규제 완화가 금융 기회를 너무 많이 만들어 낸 탓에, 주주들은 자신이 법적으로 소유한 회사에 더 이상 장기적으로 헌신하지 않는다. 예컨대 영국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1960년대 5년에서 오늘날 1년 미만으로 줄었다. 1년도 돈을 맡기지 못한다면 정말 그 회사의 소유권을 나눠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조바심 내는 주주들을 만족시키려고 전문 경영자들은 이윤의 아주 큰 몫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올림으로써, 주주가 원하면 가진 주식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게 하는 관행)으로 내주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과 영국에서 이렇게 주주에게 간 기업 이윤의 비율은 90~95%에 이르렀는데, 1980년대 이전에는 절반도 안 되었다. 주주에게 나눠 주지 않은 이윤, 곧 사내 유보 이윤이 기업 투자의 주된 재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변화는 기업의 투자 능력, 특히 수익이 장기적으로 돌아오는 사업에 투자하는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다(「Lime」 참조).

어법

- **Limited liability is the norm today, but until the late nineteenth century, it used to be a privilege granted by the crown ... only to high-risk ventures of national importance** : used to V = 예전에는 ~였다(지금은 아님 — the norm today와 대조). granted by ~ = privilege를 꾸미는 과거분사구. grant A to B의 to B(only to high-risk ventures)가 뒤에 남았다.
- **Among them was Adam Smith, the father of economics, who condemned limited liability companies on the grounds that it let their managers gamble with 'other people's money'** : 범위의 부사구(Among them)가 앞으로 나가 동사 + 주어 도치. on the grounds that ~ = ~라는 이유로. let + O + 원형부정사(gamble; to gamble은 오답). it = limited liability.
- **The reasoning was that such managers, who by definition did not own 100% of the companies, would always take excessive risk, because they did not have to bear the full costs of failure** : was that ~ = 보어 명사절. who = 계속적 용법(삽입). by definition = 정의상. would = 과거 시점에서 본 추측.
- **the point is that limited liability also lets us mobilize capital on a much larger scale than under unlimited liability** : the point is that ~ = 핵심은 ~이다. let + O + 원형(mobilize). much + 비교급(larger). than 뒤에 under unlimited liability(무한 책임 아래에서보다).
- **although he did so with the ulterior motive that faster development of capitalism would mean faster advent of socialism** : did so = sang praises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를 대신한다. the ulterior motive that ~ = 동격 that절(숨은 동기의 내용). 과거 시점에서 본 미래라 would.

- **You simply cannot get away with issuing permits for limited liability on a case-by-case basis any more** : get away with + 동명사(issuing; issue는 오답) = ~하고도 무사히 넘어가다. not ~ any more = 더 이상 ~않다. You = 일반 사람(총칭).
- **Financial deregulation in the last few decades has created so many financial opportunities that shareholders no longer have long-term commitments to companies they legally own** : so many + 복수 명사 + that = 너무 많은 ~이어서 …하다. no longer = 더 이상 ~않다. they legally own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this change has seriously weakened the ability of companies to invest, especially in projects whose returns come in the long run** : the ability of A to V = A가 ~할 능력. whose = 소유격 관계대명사(projects의 returns). in the long run = 장기적으로.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norm	표준, 일반적인 것	standard	exception
privilege	특권	prerogative	—
crown	왕실	monarchy	—
sceptical	회의적인	doubtful	convinced
condemn	비난하다	denounce	praise
excessive	지나친	immoderate	moderate
scourge	재앙, 천적	bane	blessing
ulterior	(동기가) 숨은	hidden	overt
advent	도래	arrival	departure
pronouncement	공언, 선언	declaration	—
deregulation	규제 완화	liberalization	regulation
obstacle	걸림돌	hindrance	aid
restless	조바심 내는	impatient	patient
retained profit	사내 유보 이윤	retained earnings	—

내용 일치 오늘날 유한 책임은 표준 · 19세기 후반까지는 왕실(절대 왕정 뒤엔 정부)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고위험 사업(원거리 무역 · 식민지 확장)에만 준 특권 / 회의론자가 많음 · Adam Smith('경제학의 아버지'): 경영자가 '남의 돈'으로 도박 · 100% 소유하지 않아 실패 비용을 다 지지 않으므로 과도한 위험 / 저자: 전적으로 사실이지만 무한 책임보다 훨씬 큰 규모로 자본 동원 가능 / Karl Marx('자본주의의 천적'): '최고로 발전한 자본주의적 생산'이라 칭송 · 숨은 동기(자본주의가 빨리 발전하면 사회주의도 빨리 옴) / 19세기 중반 직후 중화학 공업(철강 · 기계 · 산업 화학 · 제약) → 사례별 허가로는 불가 → 19세기 후반 대부분 나라에서 권리(최소 기준 충족이 조건) → 자본주의 발전의 주된 수단 / 최근엔 걸림돌: 금융 규제 완화 → 장기적 헌신이 사라짐 · 영국 평균 보유 기간 1960년대 5년 → 오늘날 1년 미만 / 배당 · 자사주 매입 → 미국 · 영국에서 지난 20여 년 이윤의 90~95%(1980년대 이전엔 절반 미만) → 사내 유보 이윤 감소 → 투자 능력(특히 장기 사업) 약화. **밑줄 의미** 'other people's money' = 경영자가 위험을 무릅쓰는 돈이 자기 돈이 아님 / sang praises of = 자본주의의 천적이 오히려 칭송함 — 그만큼 자본 동원력이 컸다는 방증 / the ulterior motive = 칭송의 진짜 목적은 사회주의를 앞당기는 것 / a right … rather than a privilege = 최소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누림 / this once-mighty vehicle = 한때 경제 진보를 이끌던 유한 책임 회사 / can you really say that you share ownership = 1년도 머물지 않는 주주를 진짜 주인이라 하기 어렵다 / 'cash in' = 오른 주가로 주식을 팔아 이익을 챙김 / 지칭: 117쪽 ¶4 it(used to be) = limited liability / 117쪽 ¶5 them = 회의론자들 · it(let) = limited liability · their(managers) = 유한 책임 회사의 · they(did not have to) = such managers / 117쪽 ¶6 This(is

absolutely true) = 스미스의 논리 · he(did so) = Marx / 118쪽 ¶2 it(obstacle to it) = economic progress / 118쪽 ¶3 them(given them) = restless shareholders · it(used to be) = 주주에게 간 이윤의 비율.

> **한 줄 요약** 국가가 고위험 사업에만 주던 특권인 유한 책임은 대규모 자본 동원력 덕분에 19세기 후반 권리가 되어 자본주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금융 규제 완화 뒤 조급해진 주주 때문에 이제 걸림돌로 바뀌고 있다.

15-5 유한 책임을 고치자 – 장기 보유 · 이해관계자 · 금융 규제 118쪽 ¶4 ~ 119쪽 ¶4

원문 위치 원서 118쪽 ¶4 ~ 119쪽 ¶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18쪽 ¶4	The time has come to reform the institution of limited liability, so that we retain its benefits while limiting its harmful side-effects	주장 1순위 · so that
★	118쪽 ¶5 첫 문장	First of all, limited liability may be modified to encourage long-term shareholding	개혁 1
★	118쪽 ¶5 둘째 문장	voting rights can be linked to the length of shareholding period, so that longer-term shareholders have louder voices – this is known as 'tenure voting'	용어 – 일치
★	118쪽 ¶5 셋째 문장	Some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Italy, already practise it, but only in very attenuated forms (shareholders of more than two years getting another vote …)	나라 · 숫자 · 어휘(attenuated)
▲	118쪽 ¶5 넷째 문장	by giving, for example, one extra vote to a share for each additional year owned (perhaps with a ceiling of, say, twenty votes per share)	by + -ing · 과거분사 owned · 숫자(제안)
★	118쪽 ¶5 다섯째 문장	In some way, we need to reward long-term commitment by investors	요지
★	119쪽 ¶1 첫 문장	Second, we should limit the power of shareholders, even the longstanding ones, by giving a bigger say … to other 'stakeholders' – like workers, suppliers of inputs, and local communities	개혁 2 · 대명사 ones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19쪽 ¶1 둘째 문장	The (strength and) problem with shareholders is that even the longstanding ones can leave any time	보어 that절
◆	119쪽 ¶1 셋째 문장	we would allocate power to constituencies that are more concerned with the long-term future of the company than the supposed 'owners' of it – that is, the shareholders	밑줄 의미 1순위
★	119쪽 ¶2 첫 문장	Last but not least, the options for shareholders need to be limited, in order to make them more interested in the long-term future	개혁 3 · 요약문의 바탕
▲	119쪽 ¶2 둘째 문장	by tightening financial regulations over the more speculative end ..., thereby reducing the chance of making a 'quick buck' and thus increasing the incentive	thereby + -ing · 요약문 빈칸
★	119쪽 ¶3 첫~둘째 문장	Limited liability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instruments that capitalism has ever invented. However, ... it is turning into an obstacle to, rather than a vehicle for, economic progress	최상급 + ever · 전치사 공유 · 제목 1순위
★	119쪽 ¶3 둘째 문장 괄호	(or, as a more technical term goes, in the age of 'financialization')	용어
◆	119쪽 ¶4	In the same way in which the same spice may perk up one dish but ruin another, the same institution may function greatly in one context but turn into a great problem in another	음식 비유로 마무리 · one ~ another

내용

이제 유한 책임 제도를 개혁해 그 장점은 지키면서 해로운 부작용은 줄여야 할 때가 왔다. 첫째, 장기 주식 보유를 장려하도록 유한 책임을 손볼 수 있다. 예컨대 의결권을 주식 보유 기간과 연결해 더 오래 보유한 주주가 더 큰 목소리를 내게 할 수 있는데, 이를 'tenure voting'이라 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몇몇 나라는 이미 이를 시행하지만 (2년 넘게 보유한 주주에게 1표를 더 주는 식의) 아주 약한 형태일 뿐이다. 저자는 이를테면 보유 기간이 1년 늘 때마다 주식 한 주에 1표를 더 주는 식으로 (아마도 주당 이를테면 20표의 상한을 두고) tenure voting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자의 장기적 헌신에 보상해야 한다. 둘째, 노동자 · 투입물 공급자 · 기업이 자리한 지역 공동체 같은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회사 경영에 더 큰 발언권을 주어, 오래 보유한 주주까지 포함해 주주의 힘을 제한해야 한다. 주주의 (강점이자) 문제는 오래 보유한 주주조차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주보다 훨씬 덜 움직이는 이해관계자에게 힘을

일부 나눠 주면, 회사의 이른바 '주인'인 주주보다 회사의 장기적 미래에 더 관심이 많은 집단에 힘을 배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앞의 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주주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일이다. 주주들이 자신이 주식을 가진 회사의 장기적 미래에 더 관심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금융 상품 가운데 투기성이 강한 쪽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하면 된다. 그러면 '한탕(quick buck)'을 노릴 기회가 줄고, 그만큼 회사에 장기적으로 헌신할 유인이 커진다. 유한 책임은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발명한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규제가 풀린 금융과 조급한 주주의 시대(더 전문적인 말로는 '금융화'의 시대)에 그것은 경제 진보의 수단이 아니라 걸림돌로 바뀌고 있다. 유한 책임 제도와, 금융 규제나 이해관계자 영향력의 장치처럼 그것을 둘러싼 제도들을 개혁해야 한다. 같은 향신료가 어떤 요리는 살리고 다른 요리는 망칠 수 있듯이, 같은 제도도 어떤 맥락에서는 훌륭하게 작동하다가 다른 맥락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법

- **The time has come to reform the institution of limited liability, so that we retain its benefits while limiting its harmful side-effects** : The time has come to V = ~할 때가 왔다(to부정사가 time을 꾸민다). so that + S + V = ~하도록. while + 동명사(limiting) = ~하면서.
- **We need to strengthen tenure voting seriously by giving, for example, one extra vote to a share for each additional year owned** : by + 동명사 = ~함으로써. give A to B. each + 단수 명사(year). owned = year를 뒤에서 꾸미는 과거분사(보유한 해).
- **Second, we should limit the power of shareholders, even the longstanding ones, by giving a bigger say in company management to other 'stakeholders'** : ones = shareholders(앞 명사의 반복을 피하는 대명사). give A to B = B에게 A를 주다(3형식). A = a bigger say in company management(회사 경영에 대한 더 큰 발언권), B = other 'stakeholders'. 받는 쪽 뒤에 like workers ... 같은 긴 예시가 붙어 4형식(give B A) 대신 to B를 뒤에 두었다.
- **By giving some power to stakeholders that are far less mobile than the shareholders, we would allocate power to constituencies that are more concerned with the long-term future of the company than the supposed 'owners' of it** : far + 비교급(less mobile). would = 그렇게 한다면(가정의 뜻). be concerned with = ~에 관심을 두다. it = the company.
- **This can be done by tightening financial regulations over the more speculative end of the range of financial products, thereby reducing the chance of making a 'quick buck' and thus increasing the incentive** : can be p.p. + by + 동명사. thereby + 동명사 = 그렇게 함으로써 ~하다(reducing · increasing 병렬).
- **Limited liability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instruments that capitalism has ever invented** :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 최상급 뒤 관계절의 ever + 현재완료 = 지금까지 ~한 것 가운데.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
- **it is turning into an obstacle to, rather than a vehicle for, economic progress** : 두 전치사(to · for)가 목적어 economic progress를 함께 받는다. A rather than B = B라기보다 A.
- **In the same way in which the same spice may perk up one dish but ruin another, the same institution may function greatly in one context but turn into a great problem in another** : In the same way in which ~ = ~와 같은 방식으로(~하듯이). may = ~할 수도 있다. one ~ another = 하나는 ~, 다른 하나는 …(another 뒤 dish · context 생략).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reform (v.)	개혁하다	overhaul	preserve
retain	유지하다	keep	lose
side-effect	부작용	drawback	—
modify	수정하다	adjust	—
tenure	보유 기간	holding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ttenuated	약해진	weakened	strengthened
ceiling	상한	cap	floor
stakeholder	이해관계자	interested party	—
longstanding	오래된	long-held	new
mobile	이동하기 쉬운	movable	immobile
constituency	이해 집단	group	—
speculative	투기적인	risky	safe
incentive	유인	motivation	disincentive
perk up	활기를 주다, 살리다	enliven	ruin

내용 일치 개혁의 목표 = 유한 책임의 장점은 지키고 해로운 부작용은 줄이기 / ① 장기 보유 장려: 보유 기간에 의결권을 연결(tenure voting) · 프랑스 · 이탈리아는 약한 형태(예: 2년 넘게 보유하면 1표 더) · 저자의 제안: 1년 더 보유할 때마다 주당 1표 추가(상한은 이를테면 20표) · 투자자의 장기적 헌신에 보상 / ② 오래 보유한 주주까지 포함해 주주의 힘 제한 · 노동자 · 투입물 공급자 · 지역 공동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더 큰 발언권 · 주주는 언제든 떠날 수 있음(강점이자 문제) · 덜 움직이는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장기적 미래에 더 관심 / ③ 주주의 선택지 제한: 투기적 금융 상품 규제 강화 → '한탕' 기회 감소 → 장기적 헌신의 유인 증가 / 결론: 유한 책임 = 자본주의가 발명한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 · 금융화 시대에 걸림돌로 · 유한 책임과 주변 제도(금융 규제 · 이해관계자 영향력 장치) 개혁 / 같은 향신료가 어떤 요리는 살리고 어떤 요리는 망치듯 같은 제도도 맥락에 따라 다름. **밑줄 의미** louder voices = 오래 보유한 주주에게 더 많은 의결권 / very attenuated forms = 이미 시행하지만 효과가 미미할 만큼 약함 / the (strength and) problem =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점이 주주의 강점이자 문제 / the supposed 'owners' = 법적으로는 주인이지만 회사의 장기적 미래에는 관심이 덜한 주주 / a 'quick buck' = 오래 기다리지 않고 빨리 버는 돈 / an obstacle to, rather than a vehicle for = 진보를 돕던 제도가 진보를 막음 / perk up one dish but ruin another = 좋고 나쁨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맥락에 달림 / 지칭: 118쪽 ¶5 it(practise it) = tenure voting / 119쪽 ¶1 ones(the longstanding ones) = shareholders · it(owners of it) = the company / 119쪽 ¶2 them(make them) = shareholders · This(can be done) = 주주의 선택지 제한 / 119쪽 ¶3 it(is turning) = limited liability · those(surrounding it) = institutions / 119쪽 ¶4 another = 다른 요리 · 다른 맥락.

> **한 줄 요약** 같은 향신료가 어떤 요리는 살리고 어떤 요리는 망치듯 금융화 시대에 걸림돌이 된 유한 책임은, 장기 보유 보상 · 이해관계자의 발언권 · 금융 규제 강화로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은 줄이도록 개혁해야 한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dible Economics [Chapter 15 SPICES]

범위	Spices (원서 PDF 115~119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t is time to reform limited liability so that we keep its advantages while curbing its damaging side-effects. To begin with, the institution could be adjusted to favour shareholders who stay for the long haul. One way is to tie voting rights to how long shares have been held, giving a louder voice to those who have kept them longer – a practice called 'tenure voting'. France and Italy already use it, but only in weak forms, such as granting one more vote to people who have held shares for over two years. Something far stronger is needed: perhaps an additional vote for every extra year a share is held, up to a limit of, say, twenty votes. One way or another, investors' long-term loyalty should be rewarded.

① Shareholders should be free to sell shares anytime.
② Limited liability should be abolished altogether.
③ Limited liability should be reformed to reward long-term shareholders.
④ France and Italy should give up tenure voting.
⑤ Every share should always carry exactly one vote.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Limited liability ranks among the most important tools capitalism has ever devised. Today, however, in an era of loosely regulated finance and restless shareholders – an era some describe as one of 'financialization' – it is becoming a barrier to economic progress rather than a means of achieving it. We therefore need to reform not only limited liability itself but also the institutions around it, such as financial regulation and the channels through which stakeholders can influence companies. Just as one spice can liven up one dish and spoil another, a single institution can work brilliantly in one setting and become a serious problem in another.

① From Engine to Obstacle: Why Limited Liability Needs Reform
② How Spices Conquered the Kitchens of Europe
③ The Endless Benefits of Limited Liability
④ Why Shareholders Deserve More Power
⑤ Cooking with Spices: A Beginner's Guide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fter his conversion to spices, the author could hardly believe what he had missed during his first thirty years. He even cursed his ancestors: why had they never learned to cook with marvellous ingredients like cloves and coriander seeds? Surely Korean cuisine would have been richer and more interesting if it had used fennel seeds and star anise. Then he realized he was being unfair. His ancestors lived in the far north-east of Eurasia, where the climate is far too cold for most spice plants. And, unlike the Europeans, they had neither the desire nor the power to conquer the lands where spices grew.

① Korean food would have been better with more spices.
② Blaming the ancestors for lacking spices was unfair.
③ Europeans were more skilled cooks than Koreans.
④ Cloves are the most wonderful of all spices.
⑤ Most spices grow well in cold climates.

4. 밑줄 친 sending a Mars probe – and successfully getting it back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Everyone knows that the hunt for spices was a key force behind Europe's discovery of sea routes to Asia. Fewer people know that it also handed us the most important vehicle of capitalist development: the joint stock company, also called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At first, trading in spices with the 'East Indies' was enormously risky for Europeans. A sailing-ship voyage across as many as three oceans – first the Atlantic, then the Indian and, if Indonesia was the destination, the Pacific – was, to exaggerate slightly, like sending a Mars probe – and successfully getting it back today.

① a venture so risky that success seemed nearly impossible
② a routine trip that brought steady profits
③ a scientific mission to discover new spices
④ a journey that only governments were allowed to make
⑤ an easy voyage made possible by modern technology

5. 밑줄 친 the supposed 'owner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Second, the power of shareholders, even those who have held their shares for a long time, should be curbed by giving other 'stakeholders' – workers, input suppliers and the local communities where firms operate – a larger voice in running companies. The trouble with shareholders (which is also their strength) is that even long-standing ones can walk away whenever they like. Workers, suppliers and communities cannot move nearly so easily. Handing some power to them would therefore place it with groups that care more about a company's long-term future than do the supposed 'owners'.

① shareholders, who legally own a firm yet can leave anytime
② workers whose jobs depend on the company
③ local communities where the company is located
④ suppliers who provide the company with inputs
⑤ managers who own the whole of the company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The author does not crave any one cuisine, not even Korean food. There is, however, one exception: South Asian food. If he goes without ① it for a couple of weeks, he misses ② it. Ironically, he disliked ③ it the first time he tried ④ it, although most other new cuisines won him over at once. He fell head over heels for Thai food when he first tasted ⑤ it in a Soho restaurant in the late 1980s, and Greek food was an instant hit. In Italy, on his first visit in 1987, he did not even feel he was eating 'foreign' food. But South Asian food? No.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Spices go into far more than the author's South Asian dishes. Plenty of black pepper, whole or ground, ends up in most of his stews and pasta. For crumble – apple and rhubarb is the filling he likes best, though he also makes plain apple and plum versions – he loads the filling with absurd amounts of cinnamon, cloves and cardamom pods, sometimes adding black peppercorns for extra heat. His risotto needs nothing but a pinch of saffron, provided the stock is good; his usual stock is made from onion, celery, a chicken carcass, vegetarian stock powder and a little myulchi-jut, the fermented anchovy sauce of Korea. Lately he has fallen for the South Asian 'cheese toastie', following a recipe by Nisha Katona, a British-Indian lawyer who became a chef.

① 저자는 남아시아 요리에만 향신료를 쓴다.
② 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크럼블 속은 자두다.
③ 저자는 매운맛을 더하려고 크럼블에 통후추를 넣기도 한다.
④ 저자의 리소토에는 사프란 말고도 여러 향신료가 들어간다.
⑤ 치즈 토스티 조리법의 주인은 요리사 출신 변호사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The spices Europeans valued most – nutmeg, cinnamon, clove and black pepper – once grew only in what was then called the 'East Indies': parts of South Asia, above all Sri Lanka and the south of India, and of South-east Asia, above all Indonesia. Because Columbus and the other first Europeans to invade the Americas took those lands for India, the author suspects that Europeans saw everywhere outside China, the Middle East, Africa and Europe as India. With limited liability on offer, firms such as the English East India Company, set up in 1600, and the Dutch one, set up in 1602, were born. They were not, in fact, the earliest companies with limited liability, but their success in shipping spices home and, in time, running colonies in India and Indonesia respectively gave limited liability a crucial boost. In those days, companies rather than countries held colonies.

① 귀한 향신료 넷은 한때 '동인도'에서만 자랐다.
② 유럽인은 세계의 많은 곳을 인도로 여긴 듯하다.
③ 영국 동인도 회사가 네덜란드 쪽보다 먼저 섰다.
④ 두 동인도 회사는 최초의 유한 책임 회사였다.
⑤ 초기에는 나라가 아니라 회사가 식민지를 가졌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Limited liability is standard now, yet up to the late nineteenth century it was a privilege ① granted only to risky ventures of national importance, such as colonial expansion and long-distance trade. Soon after the mid-nineteenth century, however,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② requiring vast investments – iron and steel, machinery, industrial chemicals, medicines – began to rise, which made limited liability all the more necessary. Governments could no longer get away with ③ issue permits one case at a time when most key industries ④ needed large-scale finance. So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limited liability became a right in most countries rather than a privilege, and since the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⑤ have served as the main engine of capitalist development.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o satisfy impatient shareholders, professional managers have been handing them a very large part of profits as dividends and share buybacks – a practice (A) [which / in which] companies buy back their own shares to lift the share price, so that shareholders can sell and 'cash in' if they want. In the UK and the US over the past two decades or so, the proportion of corporate profits paid out to shareholders this way (B) [has / have] reached 90–95%, whereas before the 1980s it was under half. Since retained profit, (C) [that / which] is profit kept rather than handed out to shareholders, is the main source of corporate investment, this shift has badly weakened firms' ability to invest, especially in long-term projects.

	(A)	(B)	(C)
①	which	has	that
②	in which	have	which
③	in which	has	which
④	which	have	which
⑤	in which	has	that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Over time, however, the author learned to ① appreciate, and then to love deeply, the rich mix of flavours, smells and sensations that South Asian cooking draws from a huge range of spices – coriander seeds, cumin, cloves, nutmeg, cardamom, tamarind and many more. Today he calls himself a spice ② fiend. Still, at home he cooks ③ simplified versions of South Asian dishes, relying mainly on cumin, fennel seeds and ground coriander seeds, because he finds the full authentic range of spices a little ④ inviting and unnecessary – especially since excellent South Asian food is ⑤ readily available from restaurants and as ready-made meals. His favourite drink is masala chai, a sweet tea made by boiling milk with ginger, cardamom and other spices.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Yet this once-powerful engine of economic progress has lately been turning into a barrier to it. Decades of financial deregulation have opened up so many chances to make money elsewhere that shareholders no longer stay loyal for long to the firms they legally own. In the UK, for instance, the average time a share is held used to be five years in the 1960s but is now under a year. Can people who will not leave their money in a company even for a year truly claim a share in owning it? In the author's view, shareholders like these _____.

① are owners more in name than in reality
② care more about their firms' future than ever
③ hold shares longer than investors did in the 1960s
④ have lost their legal claim to the firms
⑤ must sell their shares within a year by law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He did so, however, with an ulterior motive: the faster capitalism developed, he believed, the sooner socialism would come.

Many people doubted limited liability, even for exceptional ventures. (①) Adam Smith, whom the author calls the father of economics, attacked it for allowing managers to gamble with 'other people's money'. (②) Since such managers did not own the whole firm, he argued, they would take too much risk, never bearing the full cost of failure. (③) The author grants that this is true, but limited liability also lets capital be raised on a far larger scale. (④) That is why even Karl Marx, capitalism's fiercest critic, praised such companies as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t production. (⑤) This motive came from his theory that socialism can arrive only once capitalism is fully developed.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When the author first tried South Asian food, he complained to his friends that it lacked 'body'. ① He suspects he was unconsciously missing umami – the soy sauce and garlic he was used to. ② Looking back, though, he thinks he simply could not cope with the complex, unfamiliar sensations of so many spices. ③ Before coming to Britain, he had known only five spices and had seen just three of them in raw form. ④ The English East India Company, set up in 1600, eventually ran colonies in India. ⑤ He had eaten Chinese five-spice pork a few times but, not caring for it, never found out which spices it contained.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rewards of the spice trade were fabulous, but given the risks, investors were reluctant to put their money into it.

(A) The answer was limited liability. Investors were promised that they could lose no more than what they had put into a venture – their 'shares' – rather than all their property. This sharply cut the risk, so those organizing such ventures could raise vast sums from many investors.

(B) Worse still, if a venture failed, investors could lose not only their investment but also their house, furniture and even pots and pans, since they had to pay back all their debts. Their liability, in other words, was unlimited.

(C) Failure could even cost a businessman his freedom: if he still owed his creditors after selling everything he had, he was thrown into a debtors' prison.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third and final reform the author proposes concerns the choices open to shareholders. If shareholders are to care about where the companies they hold shares in will be in the long run, their options must be narrowed. This can be achieved by making financial rules stricter for the most speculative kinds of financial products. With fewer chances to make a 'quick buck', shareholders would have more reason to stay with a company for many years. Together with rewarding long-term shareholders and giving stakeholders a bigger say, such a change is part of the reform of limited liability and the institutions around it that the author calls for.

→ By (A) _____ the regulation of highly speculative financial products, we can make quick profits harder to come by and so give shareholders a stronger (B) _____ to stay with companies for the long term.

① tightening ..... incentive
② loosening ..... incentive
③ tightening ..... reluctance
④ loosening ..... freedom
⑤ abolishing ..... reluctance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Before coming to Britain, the author knew only five spices. On his first visit to Italy, in 1987, Italian food did not even feel 'foreign' to him, while South Asian food took him far longer to love. Europe's hunt for spices led to firms such as the English East India Company, set up in 1600. Until the late nineteenth century, limited liability was a privilege reserved for risky ventures of national importance, not a right. Adam Smith, called 'the father of economics' by the author, condemned such companies. Recently, 90–95% of corporate profit in the UK and the US has gone to shareholders, so the author calls for stronger 'tenure voting', which links voting rights to how long shares are held.

<QUIZ>

(1) How many spices did the author know before he came to Britain?

Answer for (1): _____

(2) In which country did the author not even feel he was eating 'foreign' food on his first visit in 1987?

Answer for (2): _____

(3) In which year was the English East India Company set up?

Answer for (3): _____

(4) Whom does the author call 'the father of economics'?

Answer for (4): _____

(5) What share of corporate profit has recently gone to shareholders in the UK and the US?

Answer for (5): _____

(6) What is the practice of linking voting rights to how long shares are held called?

Answer for (6): _____

(7) Is it true or false that limited liability was a right for all businesses before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90–95%	N. 1987
B. 1602	O. Thailand
C. three	P. Nisha Katona
D. False	Q. six
E. Greece	R. tenure voting
F. Karl Marx	S. 1600
G. less than half	T. Adam Smith
H. dividends	U. Italy
I. True	V. Indonesia
J. twenty	W. stakeholders
K. Sri Lanka	X. 1960s
L. share buybacks	Y. two years
M. five	Z. Columbus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앞 문장에 이어) 나는 이탈리아, 멕시코, 일본 음식도 규칙적으로 먹을 필요가 없다. (Nor + 조동사 + 주어 도치)

02 나는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감칠맛이 부족한 것이 불만이었음에 틀림없다. (must have p.p.)

03 영국에 오기 전까지 나는 향신료를 다섯 가지밖에 몰랐다. (과거완료)

04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향신료의 진가를 알게 되었고 이어서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come to V 병렬)

05 내가 향신료를 쓰는 것은 남아시아 요리만이 아니다. (It is ~ for which 강조)

06 우리가 팔각과 회향 씨를 썼더라면 한국 음식은 더 세련되었을 것이다. (if 생략 도치 가정법 과거완료)

07 덜 알려진 사실은 향신료 탐색이 우리에게 주식회사도 주었다는 것이다. (보어 도치 / 동격 that)

08 사업에 실패하면 사업가는 개인의 자유까지 잃을 수 있었다. (동명사 주어 / cost + IO + DO)

09 그렇게 해서 영국 동인도 회사 같은 회사들이 시작되었다. (So + 동사 + 주어 도치)

10 그들 가운데에는 경제학의 아버지 Adam Smith가 있었다. (부사구 + 동사 + 주어 도치)

11 같은 향신료가 어떤 요리는 살리고 다른 요리는 망칠 수 있다. (may A but B / one ~ another)

12 유한 책임은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발명한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였다.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 / ever + 현재완료)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저자의 요리([제목])	
한국 음식 없이 거뜬히 지낼 수 있는 기간	
유일하게 그리운 음식 / 그리워지는 데 걸리는 기간	
'인도' 식당의 방글라데시계 / 실헷 출신	
타이 음식을 처음 먹은 때 · 곳	
이탈리아 첫 방문	
영국에 오기 전 알던 향신료	
오향 돼지고기의 다섯 향신료	
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향신료 / 크럼블 속	
치즈 토스티 조리법의 주인	
향신료의 맛을 놓치고 산 기간	
'동인도'	
유럽이 가장 귀히 여긴 향신료 넷	
향신료 무역에 견준 오늘날의 일	
영국 /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설립	

항목	답
유한 책임이 특권이던 시기	
유한 책임 회사를 비난 / 칭송한 사람	
영국 평균 주식 보유 기간	
배당 ·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에게 간 이윤	
보유 기간 연동 의결권 / 상한의 예	
금융화 시대의 유한 책임	

4-3. 통합 사고 문제 — 14장과 15장을 잇는 자리

문제

14장에서 저자는 시장에 맡기면 기후 위기에 필요한 기술 가운데 많은 것이 개발되지 않는다며, 그것은 민간 기업이 '악'해서가 아니라 단기 실적을 내라는 끊임없는 압력을 받기 때문이고 이 경향은 금융 규제 완화로 더 심해졌다고 쓰고 「Spices」를 참조하게 했다(112쪽 ¶2). 또 수익이 수십 년 뒤에야 돌아오는 '녹색' 기술 앞에서 민간 기업은 몇 년, 어쩌면 분기 단위의 시야로 움직여 투자를 꺼린다고 했다(112쪽 ¶2). 15장에서 저자는 영국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1960년대 5년에서 오늘날 1년 미만으로 줄었다고 했고(118쪽 ¶2), 이윤의 90~95%가 주주에게 가면서 기업의 투자 능력, 특히 수익이 장기적으로 돌아오는 사업에 투자하는 능력이 크게 약해졌다며 「Lime」을 참조하게 했다(118쪽 ¶3). 이를 바탕으로, 아래 118쪽 ¶2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원서 낱말(c로 시작하는 한 단어)을 쓰고, 그 근거를 14장과 15장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14장 또는 15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주주가 회사에 머물지 않는 까닭: Financial deregulation in the last few decades has created so many financial opportunities that shareholders no longer have long-term _____ to companies they legally own.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